





(21-1과 '건강한 욥'을 보여주며)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고 있었어요. (욥의 가족을 가리키며) 욥에게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어요. (종들과 동물들을 가리키며) 또 욥을 위해 일하는 종들과 동물들이 아주 많은 부자였지요.

그리고 욥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누구보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애썼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욥을 칭찬하시며, 욥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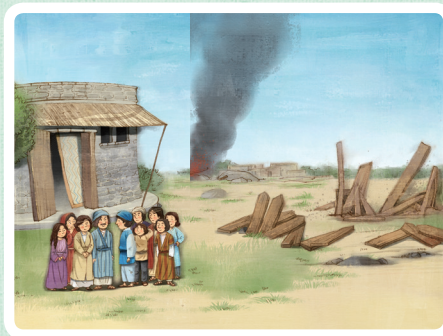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욥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욥의 종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욥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이웃 나라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 가버렸어요.”  
(‘외양간’을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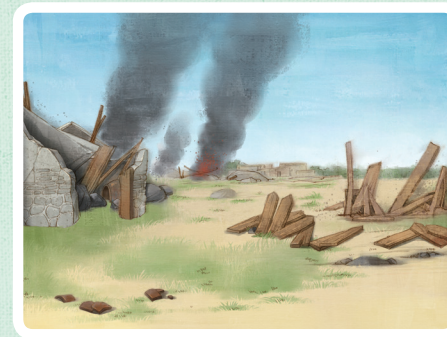
그때 또 다른 종이 달려왔어요.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들과 양 떼를 태워버렸어요!”  
(‘종들과 양 떼’를 넘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와, 욥의 아들딸들이 모여 있던 집이 무너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욥의 아들딸들은 모두 죽고 말았지요.

(‘욥의 가족’을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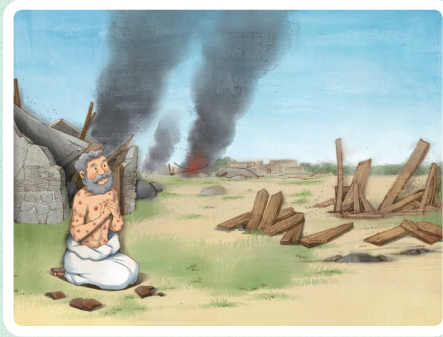


(‘건강한 욥’을 21-2에 놓으며) 욥은 너무나 슬펐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것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했어요.

(‘건강한 욥’을 흔들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시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욥 1:21)

욥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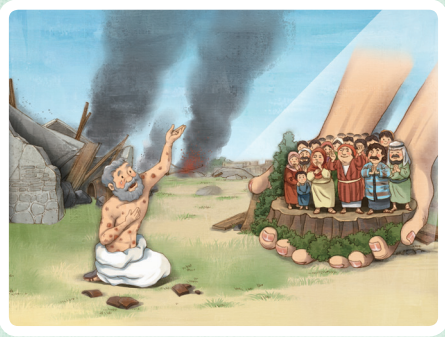


(뒷면으로 돌려 ‘아픈 욥’을 보여주며) 그런데, 욥에게 힘든 일이 또 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의 온몸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욥의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터져 피가 났어요. 욥은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내게 힘든 일이 왜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틀림없이 이 힘든 일이 모두 지나고 나면, 나는 황금처럼 더 빛나고 단단하게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욥 23:10)  
 욥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21-3을 보여주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온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느냐? 또 하늘의 별과 달, 모든 동물들을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욥 42:2).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저에게 생긴 힘든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요.”

욥은 힘든 일을 겪으며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또 힘들 때에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더 단단하고 빛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말이지요. 하나님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은 욥에게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내리셨어요.